

2022년 산업연구원의 북한경제 연구 성과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I. 들어가는 말

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수년간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2019년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을 통하여 남북한 산업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남북한 기계산업 협력방안」과 「북한 경공업 실태와 남북한 협력방안」을 통하여 각각 기계산업과 경공업의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제시하였다. 전자산업과 서비스산업 등 여타 산업에 대한 협력전략도 연구할 계획이었으나 한반도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산업별 협력방안의 시의성이 약화되어 연구방향을 전환하였다. 2022년에 기본과제로 추진한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은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촉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의 의미를 북한경제 발전 및 남북경협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용역과제로 추진한 「남북 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 구축방안 연구」 역시 전통적인 산업협력 방안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202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2년 전망 그리고 KIET 북한 산업·기업 DB 구축 등이 2022년 산업연구원 북한경제연구의 주요 성과이다. 이하에서는 기본과제인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의 내용과 성과

1.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

세계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중 기술·경제 패권경쟁의 심화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한 공급망 위축 등으로 GVC 및 공급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요 진앙지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공급망 재편이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새로운 공급망에의 참여를 통한 성장전략의 추진 기회이며 이는 역내 개발도상국의 하나인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북한의 FDI를 통한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그리고 이와 연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 GVC 지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에 따른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 효과를 검토하고, 공급망 재편이 동아시아의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에 대해 갖는 함의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귀결로서 미중의 완전한 디커플링 시나리오(신냉전 불가피론)와 선택적·제한적 디커플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선택적·제한적 디커플링이 당분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의 방향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부분적인 탈중국화로 나타날 것인데, 적지 않은 품목에서 탈중국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무역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택적·제한적 디커플링 시나리오하에서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통한 성장, 즉 ‘promotion by invitation’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GVC 참여형 산업발전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체제전환과 EU 가입이라는 제도변화를 통하여 GVC 참여형 산업발전에 성공한 중동부 유럽의 사례와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글로벌 기업의 GVC 확장을 활용한 동남아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북한의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한은 내수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1970년대 이후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성과는 크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FDI 유치가

핵심 수단의 하나인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을 북한정부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할 근거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대내외 자금조달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배분 능력 그리고 자유무역 확대 등을 전제로 하는 한국이나 대만 등의 경제발전 모델인 추격형 성장전략은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통한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은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발전 전략일 수 있다. 북한의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의 추진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이후 이 전략을 위한 타깃 산업과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생산공정 수준에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GVC 참여를 통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 중저위 기술 품목 중 미국이나 EU 등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고,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아서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하여 GVC 참여가 가능한 품목 등이 GVC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 레벨에서는 북한의 GVC 참여형 발전이 가능한 산업의 특성, 북한의 산업 기반이나 남북한 산업협력의 활용 가능성, 개발도상국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섬유·의류, 범용기계, 전자·ICT, 중저가 전기 자동차 등이 동아시아 GVC 재편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산업별 GVC 참여 여건과 추진전략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약 요인과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북한의 FDI를 통한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의 가능성과 추진방향을 요약 정리하고,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지속과 UN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 등에 따른 북중러 공급망의 형성 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거나 진전되지 않는 한 한국이 주요한 주체 중 하나가 되는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을 활용한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이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을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북한이 채택하고, 북한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2. KIET 북한 산업·기업 DB

산업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개발 및 구축하였다. 동 DB는

2000년 이후 노동신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북한 국영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의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초보적이지만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DB는 업종별, 지역별 기업 분포, 기업 목록, 보도 빈도 및 신규 설립에 관한 수치를 제공하는 총괄과 각각 기업, 산업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산업, 지역 메뉴로 구성된다.

[그림 1] 북한 산업·기업 DB



본 DB에서는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를 통하여 존재가 확인되는 기업을 도출하고, 이들을 업종별, 지역별로 분류하였다. 전력, 광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3,400여 개의 기업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각 기업에 대해서 업종, 지역, 생산품, 설비, 주요 인사 등 기업의 현황과 활동 내역을 DB화 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기업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산업 현황(산업별 기업, 산업별 지역분포, 세부 업종분포 등) 및 지역 현황(지역별 기업, 지역별 산업분포, 세부 지역별 기업분포 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1년 말 기준으로 북한에서는 총 2,772개의 제조업 기업이 확인되며, 이중 경공업 기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기업 700개를 포함해 1,534개이며, 중화학공업 기업은 448개의 화학기업을 포함해 총 1,238개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평양에 전체의 18.4%인

511개가 그리고 평안남도(남포포함)에 15.7%인 436개가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기업, 산업 및 지역의 생산규모나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지만, 공식 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를 망라함으로써 북한의 주요 기업, 산업 및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초보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DB의 기초자료인 기업 관련 기사를 투자(기업의 설립, 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 생산(구체적인 생산규모 확인 기사, 경제계획 달성 기사, 생산활동 확인 가능 기사 등), 여타 기사(과거 회고 기사, 정치 행사 기사 등) 등으로 범주화하고, 각 기업에 대하여 범주별 기사 수를 데이터화하였다. DB에서 보도 빈도라는 메뉴를 통하여 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도 빈도는 산업 생산활동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대리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별, 지역별로 보도 빈도 상위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통하여 업종별, 혹은 지역 내 주요 기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도 빈도는 무역데이터나 위성자료 등 추가적인 데이터와 결합하여 북한의 기업, 산업, 지역별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DB의 데이터는 2020년 경부터 비공식적으로 북한경제 연구자에게 제공되어 왔으며, 2023년 3월에 전면 공개되었다. 본 DB의 URL은 <http://nkindustry.kiet.re.kr>이며, 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kiet.re.kr>)의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그림 2] 제조업 업종별 및 지역별 기업 분포

산업별 분포 (2021년 12월 기준)

대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기업수(개)	비율(%)
제조업	경공업	가구, 목재, 종이 및 잡제품	345	12.45
		섬유직류	489	17.64
		음식료품 및 담배	700	25.25
		소계	1,534	55.34
	중화학공업	1차금속	56	2.02
		건설	256	9.24
		기계	297	10.71
		수송기계	74	2.67
		전기전자	107	3.86
		화학	448	16.16
	소계	1,238	44.66	
총합계			2,772	100

[Excel 다운로드](#)

지역별 분포

(2021년 12월 기준)

도, 직할시, 특별시	기업수(개)	비율(%)
강원도	173	6.24
광강도	72	2.6
자강도	190	6.85
평안남도 (남포 포함)	436	15.73
평안북도	298	10.75
평양직할시	511	18.43
함경남도	321	11.58
함경북도 (라선 포함)	244	8.8
황해남도	164	5.92
황해북도	274	9.88
미상	89	3.21
총합계	2,772	100

Excel 다운로드

[그림 3] 보도 빈도 상위기업(1차금속)

연도 선택 ~ 선택 적용

보도빈도 상위기업

기업수: 42 개 [1/5]

Excel 다운로드

10개 보기

기업명 (△▽)	업종 (△▽)	소재지 (△▽)	표준분류 (△▽)	생산 및 투자보도 (△▼)	전체보도빈도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제철·제강	남포특별시/미상	24100	491	1,398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제철·제강	황해북도/송림시	24100	471	1,289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철·제강	함경북도/청진시	24100	469	1,282
보산제철소	제철·제강	남포특별시/미상	24100	109	191
부령합금철련합기업소	제련	함경북도/부령군	24200	103	169
단천제련소	제련	함경남도/단천시	24200	91	186
성신제강련합기업소	제철·제강	함경북도/김책시	24100	87	268
청진제강소	제철·제강	함경북도/청진시	24100	84	192
청진강재공장	제철·제강	함경북도/청진시	24100	72	115
문평제련소	제련	강원도/문천시	24200	60	196